

三陰三陽과 氣의 變化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원전의학교실
박찬국

I. 序論

우리가 醫學을 함에 經絡을 항상 利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 生成原理를 이해하지 못하여 불안함을 금할 수 없다. 또 현재 西洋科學을 이용하여 經絡의 存在를 규명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전혀 쓸데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現代科學을 동원하여 규명하기 이전에 한의학에서는 經絡이 어떠한 理論을 가지고 성립되었나를 알아보는 것이 그 순서이리라 생각한다. 그리하여, 論者는 經絡의 生成에 대하여 간략하지만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素問》〈陰陽離合論〉을 근거로 하여 經絡의 生成原理를 말해보려고 한다.

II. 臟腑와 經絡

우리는 흔히 '臟腑는 五行運動을 하는데 經絡은 왜 陰陽運動을 할까?'라고 의심을 가질 수 있다. 전에도 筆者의 論考¹⁾에서 三陰三陽(以下 陰陽)은 氣적인 變化를 말한 것이고 五行은 理의 變化를 말한 것으로 五行은 內의 運動이요 陰陽은 外의 運動이라 말한 바 있다. 즉 內의 運動이란 정부의 중앙부처나, 회사의 기획실과도 같은 것으로 어떤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고 그 성과를 검토하는 곳이므로 五行 즉 木, 火, 土, 金, 水의 기능이 모두 필요한 곳이다. 그러나, 外의 運動이란 內의 지시를 받아 일어나는 단순한 氣의 運動이므로 五行의 金木水火土가 모두 필요치 않고 開闔樞運動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五行運動에서는 陰陽이 완전히 융합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비록 五行이 각기 陰陽의 속성을 가지고 서로 對立의 관계이긴 하지만 서로 分離되어 發達하지는 않는 상태이다. 그러나 五臟에서 經絡을 통하여 分化發達하면 五臟에서 융합되어 있던 精氣는 陰陽으로 나누어지

1) 박찬국, 한의학특강, 서울, 한뜻출판사, 1995. pp295-297

면서 分化發達을 하게된다. 즉 河圖에서는 陰陽이 中央과 四方에서 서로 융합되어 있는 반면에 洛書에서는 陰陽이 八方으로 分化된 것은 이와 같은 이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은 조화를 이루어 안정된 세계에 속하며 疾病에도 잘 걸리지 않지만 일단 邪氣가 침입하면 그 결과도 엄중하다. 반면에 經絡은 서로 分離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불안정하여 邪氣에 침입을 잘 받고 또 손상을 입더라도 곧 회복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尊卑를 따지자면 五臟은 尊하고 經絡은 卑賤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經絡이 卑賤하다 하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나라에서 임금은 尊大하고 백성은 卑賤하지만 백성이 나라의 根本이듯이 經絡이 몸의 本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六腑는 무엇인가? 앞에서 經絡의 運動이란 內의 지시를 받아 밖에서 이루어지는 氣의 運動이라 하였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비록 經絡이 五臟의 지시를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 지시를 실현하려면 어떤 物質의 도움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五臟은 外에서 陰陽運動을 실현하기 위하여 內에서 그 物質 즉 氣를 준비하기 위하여 六腑를 두었다. 植物은 자체내 精神이 弱하여 五臟의 기능이 약하지만, 六腑의 기능은 어느정도 관찰된다고 본다. 즉 肝의 지시를 받아 膽이 활동하고 心脾肺腎의 지시를 받아 小腸, 大腸, 膀胱이 각기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六腑에는 이 五臟과 짝이 맞지 않는 三焦라는게 있는데 이는 어찌하여 존재하며 나아가 그 존재의 의의는 무엇인가? 《內經》에서는 “三焦者 決瀆之官 水道出焉”이라 하였고 《雜經》에서는 “水穀之道路 氣之終始也”라 하였다. 이는 바로 三焦가 人體의 水分代謝에 관

여하며 또한 元氣에 관계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人體의 生理를 생각하여 볼 때 三焦를 變 五腑는 바로 穀氣의 消化吸收排泄에 관여하지만 水分의 代謝에 관여치 않는다. 실제로 大腸이나 小腸에 水分이 있고 또한 吸收되며 膀胱에 津液을 갈무리한다고는 하지만 여기의 수분은 어디까지나 穀氣의 傳化에 부수되는 水分이지 별도의 水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즉 三焦에서 관여하는 水는 穀氣와 상관이 없는 별개의 水分을 말하며 이 水分은 역시 元氣의 조절에 깊게 관여하고 있다. 그리하여 元氣의 別使라 하였으며 三焦가 相火로의 作用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만물의 變化 速度는 火의 세기와 水의 牽制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六腑에서의 變化 速度도 三焦에 있는 相火의 세기와 水의 견제作用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므로 三焦는 곧 水와 火로도 작용이 대표되니 이는 곧 伏羲八卦의 子午의 乾坤이 文王八卦에서 水火로 바뀌는 것과 같은 것으로 五臟의 精氣가 氣味와 함께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곧 三焦는 後天之氣를 生成하는데 主의 역할을 한다.

다시 정리하여 말한다면 五臟은 六腑를 부리어 氣와 味를 흡수하여 經絡을 통하여 人體를 기르고 있는데 三焦가 五臟과 六腑사이를 연결하는 고리가 된다.

그리고 이 經絡에 左右上下와 太少陰陽의 分化가 있으니 이에 더하여 연구하여 보기로 한다.

III. 經絡의 分化

人體는 결국 陰陽의 變化를 하게 되어 있는데

內에서의 精神氣血의 變化는 五臟六腑가 主管하고 外에서의 氣血의 變化는 經絡이 主管하는 것이다. 비록 內外로 나누어 內를 五臟六腑가 主管하고 外를 經絡이 主管하고 있다고 하였지만 이들 內外가 서로 分離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서로 긴밀히 접촉하고 있는 것이므로 內의 五臟六腑의 作用은 外로 經絡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五臟의 作用을 검토하여 보면 먼저 五臟이 陰이 되는 것은 五臟이 神과 精氣를 藏하여 있다가 그 作用이 六腑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즉 六腑가 그 作用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모두 五臟의 神과 精氣의 덕분이다. 또 六腑가 陽이 되는 것은 象만 있고 形도 없는 精氣와 神을 가지고 人體라는 形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즉 여기서 五臟이 精氣와 神을 藏하는 것에 經絡中에서 陰經이 깊게 관여하고 있으며 六腑가 形을 이루어 내는데는 陽經이 깊게 관여하고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五臟六腑는 五行으로 그 運動이 統一되어 있는데 經絡은 왜 자꾸 分化되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여보자.

정부의 구조를 예로 들어 설명하여 보자. 즉 정부는 위로는 대통령으로 통일되어 있지만 밑으로 내려가면서는 각부의 장관으로 나누어지고 또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욱 細分化된다. 이는 밑으로 내려 실무에 접함에 직접 物에 접하여 일을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즉 위로 올라갈수록 理를 잘 통합하면 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氣를 다루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經絡은 五臟六腑의 理를 가지고 밖에서 氣를 다루는 기관이므로 分化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植物을 예로 든다하더라도 植物은 그 끝으로 갈수록 나뭇잎이 나누어지고 또 뿌리가 갈라지고 있다. 이는 바로 나뭇잎과 잔뿌리가 외부와 氣를 교류하기 때문인 것이다.

IV. 開闔樞와 經絡의 配列

開闔樞는 《素問》〈陰陽離合論〉에서 그說이 나오고 있다. 즉 太陽을 開라하고 陽明을 闔, 少陽을 樞로 하여 三陽의 開闔樞를 하고 三陰에서는 太陰을 開, 厥陰을 闔, 少陰을 樞로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開闔樞는 무엇을 근거로 하여 만들어진 것이냐 또 우리 人體의 經絡의 배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陰陽離合論〉을 보면 “聖人이 南을 面하고 背에 北을 이룬 廣明이오 뒤를 이룬 太衝이라 太衝의 地를 이음하여 少陰이라하고 少陰의 上을 이음하여 太陽이라하니……이음하여 陰中之陽이다. 身에 中하여 上함을 이음하여 廣明이며 廣明의 下를 이음하여 太陰이라하고 太陰의 前을 이음하여 陽明이라하니……이음하여 陰中之陽이다.”하여 少陰과 太陽 및 太陰과 陽明의 기능을 기술하였는데 여기에 바로 開闔樞의 설명이 들어 있는데 너무나 간략하게 기술하고 있어 무슨 말인지 파악하기가 어렵다. 여기서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廣明과 太衝이라 하겠다. 먼저 廣明은 꽃봉오리가 벌어지듯이 사람이 팔다리와 머리 꼬리가 배꼽에서 부터 갈라져 나간 것을 말하는 것이고, 太衝이라함은 바로 사람 신체에서 과일과 씨와 같은 부분을 지칭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것은 太衝之地 名曰少陰이라는 말인데 왜 少陰을 太衝之地라 하였는가? 먼저 地의 뜻을 생각하여 보자 本篇의 앞 부분에 “하늘이 덮고 땅이 실어 만물이 바야흐로 生함에 아직 地에서 나오지 아니한 것을 이음하여 陰處라하니 이음하여 陰中之陰이라하고 곧 地에서 出한 것을 陰中之陽이

라하니 陽은 正을 주고 陰은 陽의 主가 된다”고 하였다. 즉 여기서 地는 植物이 아직 싹을 터서 솟아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즉 싹이 터서 잎이 나는 것을 陽이라 한다면 아직 싹이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을 陰이라 하는데 地가 바로 陰의 세계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少陰을 太衡之 地라 한 것은 바로 少陰이 씨이고 太衡은 少陰에서 나온 本과 같은 것이라는 뜻이다. 이는 바로 少陰이 先天의 本이라는 의미이고 太衡이 바로 이 少陰에서 根하여 一身의 氣血을 통합하는 作用을 한다는 것이다.

또 ‘少陰之上 名曰太陽’이라 하였는데 여기서 ‘上’字가 문제가 되는데 앞에서 말한 ‘地’字에 대비시켜 보면 地가 땅속이라는 뜻이라면 上은 땅위를 지칭하는 말로 땅위에 나온 잎과 같은 것이다. 즉 少陰과 太陽은 太衡을 매개로 하여 少陰은 뿌리가 되고 太陽은 잎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해석이 어려운 것은 “中身而上 名曰廣明 廣明之下 名曰太陰 太陰之前 名曰陽明……” 먼저 中身而上에서 中은 身을 上下로 나눈다는 뜻이니 곧 中身而上은 人身을 나무에 비유하였을 때 싹이 자랐는데 그 줄기와 잎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즉 醫學上的 측면으로 말한다면 後天의 身에서 또 몸을 키우고 자라는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즉 太衡과 少陰 太陽이 後天의 身에서 몸의 뿌리가 되고 싹을 맺는 부분에 해당한다면 太陰과 陽明은 몸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廣明을 사이에 두고 또 太陰과 陽明이 뿌리와 줄기처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그러므로 廣明之下가 太陰이 되고 太陰의 前이 陽明이 되어 人體에서 飲食物의 消化吸收와 營養分의 配給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곧 腎이 水를 主하여 五臟六腑의 精을 받아 藏하는 것이 바로 少陰, 太衡, 太陽의 기능에 관계된 것이요, 脾가 胃를 위하여 그 津液을 全身의 經絡에 보내는 것이 바로 太陰 廣明 陽明의 기능에 관계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들의 관계 즉 太陽과 陽明 少陽의 관계와 太陰과 厥陰 少陰의 관계에 대하여 생각하여 보자. 즉 이들의 관계는 開闔樞로 말하고 있는데 과연 이 開闔樞는 무엇을 말하는가? 開는 문을 여는 것이며 곧 나간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나갈 때 문을 열기 때문이다. 즉 아침에 일어나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는 것이요, 반대로 闔은 들어온다는 뜻이다. 즉 우리가 낮에 밖에 나가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 질때는 문을 닫기 때문이다. 樞는 문의 지도리니 바로 나가고 들어오는 중간에 있어 중개역할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開闔樞라 함은 우리 人體에서 氣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闔이라하였고 내보내는 것을 주관하는 것을 開라하였고 그 나가고 들어오는 것을 잘 조절한다는 것 즉 문이 함부로 닫히거나 열리지 않게 하고 또 적당한 때가 되면 열리고 닫히도록 조절해주는 것을 樞라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陽明을 闔이라 한 것은 陽明이 바로 外部로 부터 穀氣를 들어오는 일을 주관한다는 뜻이요 少陽이 樞가 되는 것은 陽明의 穀氣가 太陽으로 나가는 것을 조절하는 기능을 맡고 있다는 뜻이요 太陽이 開가 되는 것은 太陽에 의하여 陽明의 穀氣가 소모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陽明이 검지손가락의 안쪽과 體幹의 살면 부분을 흐르는 반면에 太陽이 새끼손가락의 바깥쪽과 體幹의 마른 부분을 흐르는 것은, 陽明으로 들어오는 氣가 거친 氣이고 이 氣가 人體에서 血이 되거나 津液이 되

어 머물 때 陽明에서 가장 풍부하다가 少陽을 거쳐 太陽으로 가면서 氣가 점차 精微해지고 그 양도 줄어들면서 精氣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즉 나무에서 본다면 앞에서 즉 넓고 큰 곳에서 광합성으로 녹말이 합성되어 줄기에서 정리되어 뿌리나 열매에 저장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人體에서도 植物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비슷한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단 精으로 합성된 것은 다시 少陰에서 출발하여 太陰으로 나가면서 精氣는 소모되고 대신에 形氣가 축적되면서 形이 커진다. 그런데 발가락에서는 少陰이 발바닥의 가운데로 흐르고 厥陰이 엄지발가락으로 흐르는 것은 발바닥이 항상 체중에 눌러서 氣血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나타난 異常인 현상이라 할 것이다.

V. 經絡의 生成과 理解

經絡의 生成은 반드시 어떠한 目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目的을 理解하고 經絡의 기능을 알면 經絡에 대한 理解가 쉬워질 것이다. 여러번 이야기되는 것이지만 經絡은 陰陽運動을 맡고 있는 人體의 기관이다. 그러면 陰陽이란 무엇인가? 바로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氣의 變化를 말하는 것이니 生長收藏이 바로 陰陽의 運動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生長收藏은 사람이나 동물은 물론 植物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므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일이다. 사람에서 이 運動을 이해하기 보다는 植物에서 관찰하는 것이 쉬우므로 사람의 經絡의 활동을 植物에 비유하여 생각하여 보기로 하자.

즉 植物중에서도 나무보다는 일년생 풀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콩을 그 예로 든다면, 콩이 싹이 터서 잎과 줄기가 자라는 것은 少陰에서 太陰으로 變化하는 것이고 일단 잎이 콩이 광합성을 하여 씨를 맺어가는 과정은 陽明에서 太陽으로 變化해가는 과정이다. 물론 이는 외부적으로 관찰한 것이다. 내부적으로는 이와 반대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콩이 이렇게 一年 四時를 통하여 그 一代를 살아가는데 콩은 季節에 따라 그 陰陽變化에 상당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겨울에는 알몸인 콩만으로 존재하다가 봄 여름에 푸른 잎을 가진 풀로 변하고 가을에 낙엽이 떨어진다. 즉 變化가 우리에게 뚜렷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人體에서도 이러한 變化가 일어나고 있는데 단지 그 變化가 눈에 띄게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잘 관찰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콩은 계절에 따라 그 變化에 차이가 있으나, 사람은 계절에 따라 차이를 두기는 하지만 스스로의 精神이 강하기 때문에 계절을 무시하고 스스로의 陰陽의 차를 이용하여 生長收藏을 수행한다. 즉 콩은 氣立之物로 五臟六腑가 없어 계절의 變化에 의존하지 않고는 生長收藏의 陰陽運動을 수행할 수 없지만, 우리 사람은 精神을 갈무리하는 五臟이 있고 또 이를 돕는 六腑가 있어서 독립적으로 生長收藏을 수행한다.

즉 다시말하면 天地에 四季節의 變化가 있음으로 인하여 植物이 生長收藏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에게서는 五臟에 陰陽의 變化가 갖추어져 있고 또 經絡에서 역시 陰陽의 偏差가 갖추어져 있으므로 生長收藏의 變化能力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사람이라고 자신에게 갖추어져 있는 陰陽의 偏差에만

의존하여 生長收藏이 일어나는 것은 이니고 계절의 變化에 적응하여 스스로 變化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植物에 비하여 좀더 獨立의으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나 植物을 氣立之物이라고 하는 반면에 사람을 神機之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經絡의 이해는 곧 三陰三陽의 이해를 의미하는 것이다.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三陰三陽의 變化를 이해한다면 곧 人體에서 일어나는 三陰三陽의 變化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며 이 三陰三陽의 이해는 곧 經絡을 이해하는 것이다.

VI. 經絡의 表裏

앞에서 이미 왜 少陰이 새끼손가락 쪽으로 흐르고 太陰이 엄지손가락 쪽으로 흐르는가에 대하여는 말한 것 같다. 즉 陰經은 人體에서 펼쳐내는 作用을 한다. 다시말하면 植物이 太陽光線을 받아서 녹말을 합성하려면 먼저 잎을 켜서 太陽光線을 받고 공기와 물을 결합하여 만들 설비를 갖추듯이 사람도 精을 만들려면 먼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內經》〈四氣調神大論〉에서 春三月을 發陳이라 한 것이다. 물론 공장의 설비를 갖추려면 먼저 자본금이 필요하듯이 사람도 陰이 설비를 갖추려면 氣가 필요한데, 이 氣는 땀에 갖추어져 있는 精氣가 그 역할을 한다고 본다. 즉 여기서 말하는 陰陽의 變化는 穀氣를 재료로 가져다 쓰는 것이지 穀氣 자체가 陰陽의 變化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즉 穀氣를 재료로 하여 陰陽의 變化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봄에 잎이 피듯이 厥陰과 少陰은 갈무리하였던 精氣를 켜서 太陰에서 완전히 퍼면 太陰은 少陰에 비하여

커진 것이므로 密度가 상갈어져서 비로소 외부로부터 氣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즉 우리의 肺가 五臟中에서 그 부피가 가장 크면서 또 외부로부터 大氣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바로 太陰이기 때문이며, 또 足太陰이 陽明과 表裏가 되어 穀氣를 받아들이는 것도 바로 太陰이기 때문인 것이다. 그러나, 陰經에서 外氣를 받아들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몸안에 있던 精氣를 태워가는 과정이다. 즉 어디까지나 陰에서 陽으로의 轉換過程이므로 血을 소모하여 氣를 生成하는 作用을 말한다. 그러므로 바로 三陰經의 常數가 少血多氣인 것이다. 이와 반대로 三陽經은 三陰經에서 만들어준 氣를 소모하여 穀氣를 흡수한다. 그런데 陰陽의 表裏關係에서 太陰과 陽明이 짝을 이루므로 陽明에서 穀氣를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렇게 받아들인 穀氣를 우리 人體가 그대로 쓸 수 없고 다시 이를 가공하여야 비로소 쓸 수 있다. 그러므로 陽明을 통하여 들어온 穀氣는 少陽이 들추어서 잘 탈 수 있게 하고 太陽에서 다 타면 쓸모없는 재는 버리고 精氣만이 太陽의 짝인 少陰에 갈무리 된다. 그러나 모든 穀氣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精氣가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穀氣는 그냥 中焦에서 變化하여 營氣로 변하였다가 그냥 厥陰에 갈무리되는 것 같다. 그러므로 人體의 精氣의 循行과 氣血의 循行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도 內外의 구별이 있다.

VII. 經絡의 生成과 圖解

經絡의 陰陽의 偏差는 접어두고 도대체 經絡은 어떻게 生成되었을까? 우리는 흔히 萬物の 生成을 數로써 설명한다. 그와 마찬가지로 經絡

의 生成도 數로 설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먼저 一(1)은 무엇인가? 一(1)은 바로 陰陽이 나누어지지 않은 無極이니 또는 나누어졌다해도 分離되지 않은 太極의 상태니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원에 불과하고 二(2)는 陰陽이 分離된 상태니 원을 유지하지 못하고 기다란 막대모양을 유지할 것이다. 三(3)은 기다란 막대가 다시 天人地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하고 四(4)는 天人地로 나누어진 막대모양에서 天과 人사이와 人과 地사이에서 팔다리가 생기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팔다리가 생기면 이 팔다리와 人에 해당하는 몸통이 합쳐져 五行이 된다. 이 五行이 뻗었다는 것은 바로 머리와 꼬리에 해당하는 엉덩이 부분을 빼어서 人이 따로 독립을 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물론 이렇게 독립된 人이라하여도 天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에 자발적으로 스스로의 생각을 가지고 생활하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수에서 一~五(1~5)까지를 生數라 하고 六~十(6~10)을 成數라 한다. 즉 五行으로 모든 준비를 갖춘 人이 이제부터 자기의 目的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五行의 變化가 삼음삼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天地의 陰陽은 太少陰陽으로 족하였으나 사람은 스스로의 欲心이 있어 스스로 독립해야 하므로 開闢에 대하여 樞가 더 있어야 하므로 6個가 된 것이다. 이렇게 陰陽變化가 일어나면 盛衰가 생기고 이 盛衰에 따라 火가 생기면서 七情이 생기므로 七(7)에 應한다. 즉 三陰三陽은 七情의 火가 생기는 바탕이므로 六(6)으로 水의 成數가 되고 七은 火의 成數가 되는 것이다. 또한 天地가 氣를 交하면 草木이 나듯이 사람에서도 水火 즉 三陰三陽의 經絡과 七情이 생겼으니 木이 생기지 않을 수 없으니 氣血筋骨脈 등이 생기는데 바로 八方 즉 세상의 방

방곡곡에서 만물이 생기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八(8)은 木의 成數가 된다. 이렇게 氣血筋骨등이 생기면 반드시 분쟁이 생기니 이를 조절할 기구가 필요하여 九竅가 만들어지는데 이는 바로 金의 成數에 해당하며 四方에 배치한다. 八(8)과 九(9)의 作用으로 다시 人體가 平衡에 이르면 원래의 目的을 달성하여 十(10)이 되어 五(5)로 합하여 진다.

VIII. 結論

현재 많은 과학자들이 經絡의 實體를 밝히려 고 노력하고 있는데 대부분 西洋科學的인 方法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는 그 순서가 틀린 것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經絡은 三陰三陽에서 나온 것이고 三陰三陽은 바로 東洋의 陰陽五行思想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經絡을 규명하려면 먼저 陰陽五行論으로 그 존재를 이해하고 그 바탕에서 西洋科學的 實驗이 이루어진다면 그 증명이 가능할런지 모르겠다.

三陰三陽이란 인체에서 단순히 陰陽의 氣的인 偏差를 말하고 있는 것이므로 經絡이라는 구조가 있을 수 없고 형체가 있을 수 없다. 단지 少陰은 少陰으로서 氣의 특징이 있고 太陰은 太陰으로서 그 氣의 특징이 있을 따름인 것이다. 즉 젊은이와 늙은이가 形態와 構造가 다른 것이 아니다. 그 氣가 다른 것과 같다.